

# 진안군, 마을하수도 확충

### 올해 91억 투입 11개 읍면 55개 마을에 설치... 용담호 수질개선 기여

진안군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와 데미션 발원지로 대표되는 섬진강 상류 지역의 수질오염방지와 상수원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019년까지 총사업비 699억원을 투입 마을하수도 14개소(하수처리장 300톤/일, 하수관로 98km)를 확충해 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진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마을 중 환경부로부터 국비(70%)를 지원받아 전북도 인가 및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재원협의를 받아 추진된다.

올해에는 총사업비 91억여원을 투입

해 11개 읍면 55개 마을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한다.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면 건축물을 신축할 때 개인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정화조도 폐쇄해 보건환경 개선은 물론 용담호와 섬진강 상류의 수질개선에 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완공 목표인 진안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불명수 유입으로 처리장 용량 한계치에 도달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진안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용담호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수면 산주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도 올해 완공되면 160가구, 455명

의 주민이 혜택을 받아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항로 군수는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150만명의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의 맑은 물 보전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쓰레기 3NO 운동(안바리고, 안태우고, 안묻고), 우렁이농법 등 주민자율수질관리 노력과 더불어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진안군 행정의 적극적 노력으로 전북도민의 깨끗한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맑은 물 보전에 앞장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 청년 무료건강검진 추진

### 만 19세~30세 대상... 4월 1일부터

완주군 보건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청년 무료 건강검진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완주군 거주 만 19세부터 30세(지역내대학생포함)이며, 건강검진 항목은 흉부 방사선촬영, 혈액검사(간염항원·항체, 콜레스테롤, 간기능, 신장질환검사), 요검사 등 총 14가지 항목을 검사하게 된다.

청년들은 인스턴트 음식 섭취와 흡연·음주·취업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학업과 취업준비의 리소각자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취지로 무료건강검진

을 추진한다.

검진결과 이상이 발견될 시 이상 소견이 큰 경우는 보건소 진료의사의 상담을 통해 전문기관에 정밀검진 및 재검진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상소견이 낮은 경우는 식생활 개선 등 보건소 건강진진팀에 연계해 식이요법 및 운동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다.

박현선 보건소장은 "지역 내 청년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건강관리 유도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군민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무료로 건강검진이 실시되는 만큼, 청년들이 건강검진에 많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박차

장수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 주민 홍보에 나섰다.

지난 21일 천천면을 시작으로 4월까지 7개 읍·면을 순회하며 '부동산중개업 바로알기' 교육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주요 교육으로 ▲부동산 중개업 바로알기 ▲부동산 중개업자 집중단속 홍보 ▲부동산 거래 시 주의 사항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터넷 검색 포털서비스 활용 방법 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에게 군에서 제작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적법한 중개수수료를 이용, 잘못된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2월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중개업소 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와 공정한 중개업무수행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자정결의를 한 바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11개 읍·면 하천정화활동 전개

진안군은 29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용담호 수질자율관리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 실천의지를 결집해 광역상수원인 용담호를 맑고 깨끗하게 지켜가기 위해 진안천, 삼립천을 비롯한 11개 읍·면에서 하천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11개 읍·면에서도 자체 하천정화활동계획에 따라 용담호

로 유입되거나 식수로 이용되는 주요 하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특히 진안천과 삼립천에서는 150여명의 군청 공무원과 주민, 22개 기관,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담당 하천변 청소구역에서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 나뭇가지, 비닐 등 2.5t을 수거했다.

'세계 물의 날'은 심각해지는 물 부

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유엔에서 제정한 날이다.

이에 진안군도 매년 하천정화활동을 통해 먹는 물의 소중함과 상수원인 용담호 상류 수질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물이 소중한 자원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며 "앞으로도 군민의 용담호 수질개선에 대한 관심과 자율적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잡초방제 부직포·벼 육묘 상토&매트 지원

무주군이 잡초방제용 부직포와 벼 육묘용 상토&매트 등 영농자재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달까지 공급을 마칠 계획으로 '잡초방제용 부직포'는 농가 일손을 돕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인증농가와 일반농가 등 275농가(558.143㎡)에 지원(2억 6,000여만 원 투입/보조 50%, 자담 50%)한다.

또 413농가(4,673,065㎡)에 공급할 예정인 '벼 육묘용 상토 & 매트'는 생력화 재배기술을 보급해 건전한 우량

묘 생산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지원(2억 1,000여만 원 투입/보조 70%, 자담 30%)하는 것으로, 군은 1,000㎡당 소요되는 매트가 40매, 201짜리 종량상토가 6토, 401짜리 종량상토는 4토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농가 면적에 맞춰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무주군 농업소득과 운수진 친환경농업 담당은 "농가재물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염선된 자재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6개 기업,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경력단절여성 채용 위해 협력 강화하기로

장수군은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내 기업체 관계자와 군청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가졌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수미)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군은 (주)천보, 농업회사법인 움체(주), 나뭇리조트(주), 반석자원, 밀알노인복지센터, 장수지역자활센터 등 6개 업체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으로 여성친화기업으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협약체결 기업체와 안셀 코리아(주), (주)피코바이오, 장수도개비동 굴김치영농조합법인, 제일산업(주) 등 관내 15개 기업체 인사담당자협의회를 갖고 기업체 취업자 고용유지 지원 기업 간 협력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여성인력 활용의



장수군은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내 기업체 관계자와 군청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가졌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수지역 내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체의 적극적인 고용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빈창근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협력

회의를 통해 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 지식을 갖춘 여성 인력 양성을 통해 원활한 구직활동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세계태권도대회 대비 위생교육

무주군은 29일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무주군지부(지부장 서병국)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대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주 350여 명이 참석해 식품위생안전법, 식품안전관리법(원산지표시)에 관한 내용,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 참석했던 김 모 씨는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게 서비스를 높일 때 내 가게도 잘되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하는 동시에 우리 군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는데도 한몫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누구라도 한번 맛보면 또 먹고 싶고 한번 외보면 다시 오고 싶은 맛집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 5월까지 관내 식품 공중위생업소 70개소를 대상으로 한 친절 컨설팅도 진행을 한다.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비롯해 태권도원 먹거리에 참여하는 푸드 빌리지와 간식먹거리업소, 그리고 무주덕유산리조트에 입점해 있는 업소에서 친절도(표정, 인사, 접객용어 사용 여부)와 청결도(음모, 복장, 실내·외 환경)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보수교육, 선진지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공유토지 특례법 3년 연장

진안군은 29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올해 5월 22일 만료 예정이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분할 신청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분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완주군은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법인의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정관리과로 접수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군청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군은 지역내에 사업장이 있는 1,385개 업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안내책자와 리플렛을 지난 28일 발송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00-2326)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 眞心 홍삼주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